

이번 사순시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창조적 사랑

하느님께서 매순간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번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삶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니 (Getsemaní, detalle de la Capilla de la Casa de Formación DCJM.)

제목: 하느님 섭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코로나 바이러스 –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글쓴이 : Fr. José Granados

Superior General of the Disciples of the Hearts of Jesus and Mary

번역: 손호빈 신부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재앙들, 특히 다섯째 재앙인 지독한 흑사병(탈출 7, 14 이하)에서 탈출시켜주신 구절들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새로운 삶에 대한 영감을 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시편 31,16)라는 시편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삶과 죽음 모두가 창조주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의 삶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경제학자는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인 견해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믿음(신앙)입니다. 믿는 이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알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왜?”라는 물음을 “무엇을 위해?”로 바꿔 생각해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구원에 이르는 고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계획이거니와, 이 설계에 있어서 고통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음은 사랑을 방출하기 위함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일들을 탄생시키기 위함이며 인간의 문명 전체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형시키기 위함입니다.” (30항). 하느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고통은 우리 내면에 자리한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 고통에 무관심, 태만 그리고 무책임으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바탕으로 맺는 관계들이 얼마나 가치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 보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함께 머물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일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친교’로 불림받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위대한 선(善)을 배웁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삶에 의미가 없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삶은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그리고 이웃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개인주의의 가면과 위선을 벗기고 공동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터전은 지역, 사회, 도시 그리고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더욱 일치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아픔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사랑을 날눌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혜롭게 실천하도록 해줍니다. 더욱이 기술적인 방법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며, 그에 대한 예방 접종과 같은 애정어린 나눔을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세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깨어있음은 ‘함께 함’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예측불가능한 상황 또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생기는 무력감은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성적이며 창조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머물며 사랑을 나눠야하며,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하며 도움을 주고 희망을 북돋으며 하느님 사랑(창조 때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살아숨쉬는 사랑(Creativity of love)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한한 원천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네번째로, 만약 우리가 시선을 모든 사랑의 근원이자 통로인 하느님께로 돌린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강제 격리(강요된 고립)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위대한 질문을 보다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존과 우리를 살아숨쉬게 하는 생명의 숨(호흡)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과 사랑의 숨결에 대한 궁극적 신비를 묻게 합니다. 이 신비의 기원과 운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즉, 고통에 응답하신 하느님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 고통에 감염되기 위해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치유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 몸과 피의 성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히 미사를 함께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비록 사제가 홀로 미사를 집전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미사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랑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보다 간절히 기도 드릴 수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아침,저녁 기도를 그리고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순시기 동안 성체를 영할 수 없는 단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빵(요한 6,33 이하)에 대한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일깨운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비극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인 성체성사를 잃어버리면(빼앗긴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우리를 이 슬픔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성체성사에는 어떤 바이러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공동 삶(함께 살아가는 삶)의 무한한 원천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위협은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랑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이는 네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시편 91,5-6.9)”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전염병에 맞서 우리가 서로를 자애로움과 창조성으로 서로를 돕는 우리의 지혜, 다시 말해 지성적 사랑을 헤아리고 계십니다.